

# 체육계 폭력 ... 멈춰!

군대에서의 가혹행위,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빈번하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바로 체육계 폭력이다. 한국 체육의 중심인 우리 대학에서도 폭행 사건은 피할 수 없었다. 매년 한국체육대학교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키워드가 뉴스 한편에 실린다. 4면에서는 체육계 폭력의 실질적인 대책을 현장에 있던 경험자에게서 들어보고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체육계 폭행을 철학적인 측면에서 다뤄보았다.

권규태 기자 202220003@m365.knsu.ac.kr

## 약 1년 만에 또..

지난 5월 27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폭행,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했다. 천마 생활관 사감이자 역도부 코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합 및 1시간 넘는 알차려를 주고 하키채를 이용해 폭행했다. 폭행으로 인하여 학생 중 한 명이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큰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학교는 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모양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에 의거해 센터 내 인권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연합뉴스, KBS 등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교무처장과 지도교수가 나서 학생 본인과 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해 ‘내부 해결’과 고소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체육시민연대에서는 “학교의 은폐 시도와 2차 가해를 중단하고 가해자의 처벌 촉구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 체육계가 걸어온 ‘얼룩진’ 길

체육계 또한 사정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많은 체육계에 있는 이른바 ‘악자’들이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핸드볼부 선배가 후배들을 대상으로 라면 국물을 얼굴에 붓고 흥기를 던지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 2019년도에는 육상부 1~3학년 학생들이 조교와 4학년 학생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는 등의 가혹행위가 학교 내 생활관에서 발생했다.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 2014년에는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생체실험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힘과 권위를 이용한 크고 작은 폭행 및 가혹행위가 학교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폭행과 가혹행위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체육계 또한 사정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많은 체육계에 있는 이른바 ‘체육계 위계문화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2021년 승마 선수들이 대회 전날 음주를 하던 중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사건을 묻자며 코치들이 피해자를 회유하고 은폐를 시도한 일이 적발되었다. 2020년 6월에는 경주시청 소속의 고(故)최속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감독과 팀닥터, 동료선수들의 가혹행위와 성폭행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A(당시 체조 국가대표) 선수가 감독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선수촌을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

다. A씨의 무단이탈은 선수촌 내의 가혹행위 때문이지만, 체조협회는 사건을 감독의

폭행 및 폭언이 아닌 체조선수의 무단이탈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폭로가 동료 선수들로부터 나왔다. 같은 해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심석희 선수가 빙상 대표팀 조재범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심석희 선수를 전명규 전 한국체대 교수이자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새벽 1시까지 전화로 설득을 해가며 은폐하려 했다. 체육계 폭행은 왜 잊을만하면 터지고 끊이지 않을까.

## “본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할 수 없는 구조”

약 10년 간 선수생활을 해왔고, 현재는 한국체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A조교에게 체육계에 왜 폭행이 계속되는지 ‘현장

에서의 얘기를 들어봤다.

## Q.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수로 뛴 때 본인이 직접 폭언, 폭력 등의 가혹행위를 행하거나 목격한 적 있나요?

A. 제가 선수로 뛴던 학생 때는 있었는데, 한국체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행하거나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 Q. 현역 시절, 언제 어디서 목격했으며 어떤 식으로 가혹행위가 행해졌나요?

A. 폭행과 폭언 다 있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뺨을 맞거나 집합을 시킨 후 신체를 맞았습니다. 손 등의 신체 부위를 이용한 폭력도 있었고, 둔기 등을 이용한 폭력 역시 있었습니

## Q. 폭력행위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당시 전문 체육에서는 폭력과 폭언 구

타 등이 허용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폭행, 폭언이 일상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Q.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당시 폭행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A.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폭행을 당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습니

## Q. 체육계 폭행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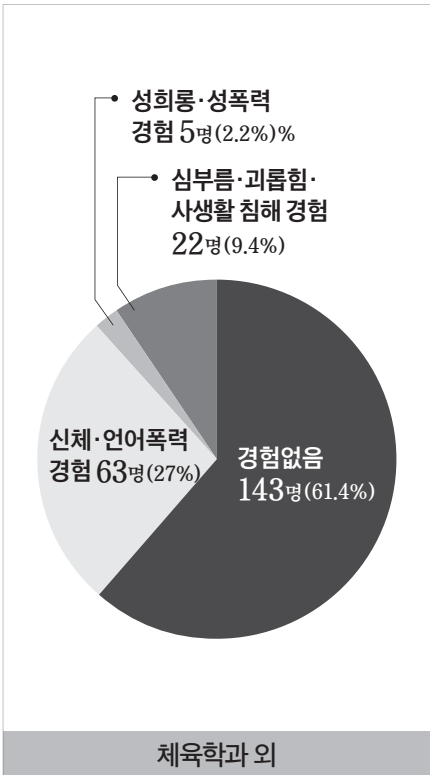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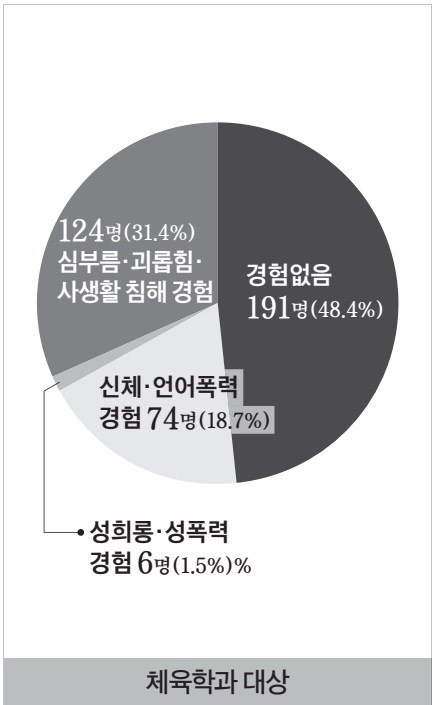
A. 일단,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저희 세대는 폭행이 전문 체육에서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일로 생각하고 일종의 ‘문화’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습니

## Q. 폭행이라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A. 행정적인 시스템 상으로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장의 입장에서선 선수 시절 때 인권, 존중의 중요성과 이를 경험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

## <한국체대의 인권침해 피해 경험>

2021년 한국체육대학교 인재개발원에서는 스포츠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인권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인권침해 피해조사는 2021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기숙사생활을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체육학과 학생의 40.1%에 해당하는 395명이 설문

생활체육대학, 스포츠문화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체육학과 제외)에 재학 중인 233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피해 경험을 알아보았다.

자료 출처: 2021 인재개발원 인권실태조사

## 빙원철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법과 제도 보다 철학적 사유가 선행되어야”

수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폭행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철학 수업을 담당하는 빙원철 교수(이하 빙 교수)에게 물었다. 빙 교수는 “기본적으로 체육계에서 비윤리적인 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고(故) 최속현 선수 사건으로 ‘최속현법’도 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이 일어나는 것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 위에 있는 인간의 철학적인 사유가 확립이 돼야 한다. 또한 윤리인식에 대한 변화로 체육계에 있는 사람들의 독립적인 스포츠 윤리에 대한 인식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스포츠윤리 인식사유가 확립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체육계에서는 폭행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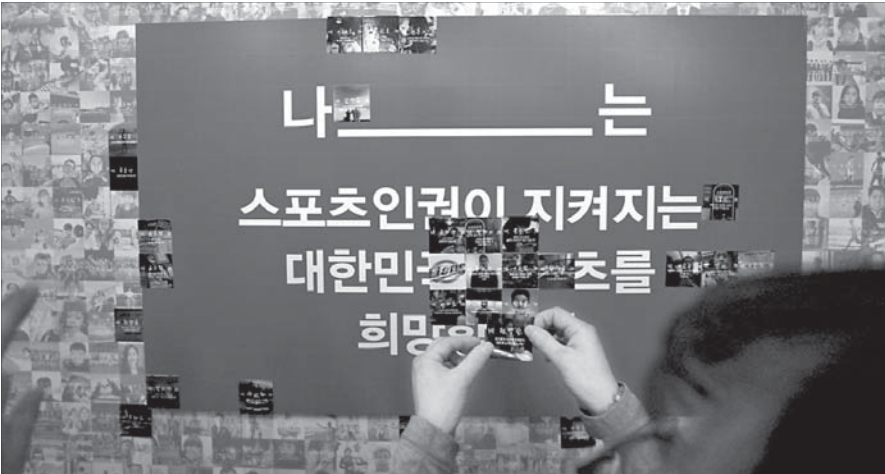
이어서 폭행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빙 교수는 “깊은 사유의 능력이 없이,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스포츠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나온다. 스포츠가 몸으로 하는 것이지만 감각적인 본능을 넘어서는 지적인 윤리적인 인식을 키워주는 교육,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빙 교수는 “스포츠 선수들과 지도자, 각각의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개인이 스포츠 윤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스포츠 폭력의 상황이 됐을 때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이겨낼 수 있다. 다시 말해 감각과 본능을 이겨내는 사유의 능력을 길러야 하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유의 능력을 교육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위에서 A조교는 “자격요건에 (인권) 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도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교수의 생각을 물었다. 빙 교수는 “의무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현재에는 인터넷으로 듣는다든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찾아가는 교육과 함께 생각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을 지키면 지도자를 계속할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지도자를 계속하지 못한다.’와 같은 교육이 아니라 지도자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밀착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이제 대한체육회나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진행을 해줘야한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기자생각

‘끊임없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오는 3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가정폭력과 군대의 가혹행위, 체육계 폭행이다. 세 가지의 문제 모두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해자보다 사회적, 신체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해진다. 또한 ‘나 때는’이라는 합리화로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부조리를 그대로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내리갈굼’하는 특징이 있다. 앞서 A조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선수 시절에 존중받음을 느끼고, 이를 다음 세대의 선수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긍정적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육을 마련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빙원철 교수의 말처럼 구체적이고 밀착된 교육이 필요하다. 더하여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변화하는 것은 더욱더 발전된 체육계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주최한 ‘스포츠인권 선서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각자의 선서를 붙이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